

여수시, 공립노인전문요양병원 결국 계약 해지

법인부도·부적절 운영 등 사업수행 곤란
市, 29일까지 새 위탁 운영자 모집
“고용승계 등 병원 운영 차질 없을 것”

여수가 부적절 운영 등의 문제가 드러난 공립 여수노인전문요양병원의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여수시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공립 여수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설하게 이끌어갈 새로운 위탁 운영자를 모집한다

고 19일 밝혔다.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지난해 5월4일부터 5년간 서울 소재 의료법인 성석의료재단과 위·수탁 계약을 체결, 민간 위탁으로 운영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의 부도와 법인회생절차 지연 등으로 공립병원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등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여수시는 결국 위탁계약을 해지했다. 특히 의료 보험으로 조성된 수입 대부분을 법인 통장이 아닌 부원장 개인통장으로 관리해온 것과 노인차매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원장의

아내를 사회복지사로 채용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 250만원과 별도로 병원에서 지급하는 급여 200만원을 지급하다가 직원들의 불만을 산 것도 해지 사유가 됐다. 여수시는 오는 29일까지 새로운 위탁운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27-29일 3일간 받는다. 신청 자격은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또는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서 병원급 의료기관을 3년 이상 운영했거나 운영하는 사람이

여수시 소재 의료법인의 경우 일정 부분 가점이 부여된다. 여수시보건소 관계자는 “노인전문요양병원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으나 공립병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협약을 해지했다”며 “새로운 법인이 선정될 때까지 입원환자 보호, 종사자 고용 승계 등 병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노인전문요양병원은 연면적 3446㎡,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 125병상을 갖추고 있으며 100여명이 입원해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고흥, 생김 생산량 99만800톤 전국 최대

932억원 위판액 전국 1위



고흥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생김을 생산했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2020년산 고흥 생김 위판량은 총 99만800t, 위판액은 932억원으로 모두 전국 1위를 달성했다. 지리적표시제 제2015-21호로 등록된 고흥김은 지난해 11월27일 위판을 시작해 올해 4월16일까지 142일 간 위판됐다. 고흥김은 품질이 우수해 전국 김밥용 김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일본·동남아 등에 수출하는 고흥군의 전략 품종이다. 고흥군은 고품질 고흥산 생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김 우량종자를 개발하고, 김 냉동망과 친환경 부표 보급 등 양식사업 5종 15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김양식 어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전국 생산량·생산액 동시 1위가 가능한 것은 김 양식 어민들의 정직한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명품 김을 생산한 김양식 어업인들을 격려했다. /고흥=주낙준 기자 gju@kwangju.co.kr

영암매력한우 1+등급 출현율 84%...1분기도 전국 1위

전남 평균 64% 보다 20% 높아
고품질 사료로 명품한우 생산

영암매력한우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도 거세우 등급판정에서 1+등급 이상 출현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9일 영암군에 따르면 영암매력한우는 올해 1분기 거세우 출하 성적 분석 결과 1+등급 이상 출현율 84%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78.9%로 전국 1위를 차지한 것보다 5.1%포인트 높고, 전남 평균(64%)보다는 무려 20% 웃돌았다. 영암군은 지난해 5억6100만원을 투입해 고품질 TMR(섬유질배합사료) 생산 인프라를 구축한 결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매력한우 TMR사료공장 생산량과 매출액이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TMR사료 이용 농가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이 2% 향상되고, 도체중(도살한 가족의 가족·머리·발목·내장 따위를 떼어 낸 나머지 몸통의 체중)

은 12kg, 등심단면적은 3㎠ 증가하는 등 우수한 출하성적을 거뒀다. 영암매력한우는 400여 농가가 2만4000여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영암군은 차별화된 고품질 매력한우 생산 기반 조성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혈통 관리를 위한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한우 등록, 혈통 분석,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등 4개 사업에 7억원을 투입한다. 또 한우농가 고급육 생산 의욕 고취를 위한 고급육 생산 장려금과 엘리트카우(우량암소) 출산장려금 사업에 1억3000만원 지원한다. 영암군은 매년 급증하고 있는 매력한우 사육두수와 수입 개방으로 인한 불안정한 유통시장에 대비해 안정적인 유통망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 전국 각지에 400여개 매장을 보유한 롯데슈퍼와 대형 유통벤더업체인 CY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매력한우를 공급한다. 대형마트·백화점 등 다양한 소비층을 확보를 위한 입점 컨설팅을 추진한다.



영암매력한우가 제22회 전국 한우능력평가대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영암군 제공) 또 브랜드 홍보를 위한 판촉 활동 등을 펼쳐 영암 매력한우가 전국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완도 전복 37% 온라인 할인 판매

‘랜선 타고 팔도미식’ 기획전
행안부·문화부·네이버 업무 협약

완도 특산물인 특대 전복 500g을 37% 할인된 1만8900원에 살 수 있는 온라인 장이 열렸다. 완도군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네이버와 ‘랜선 타고 팔도미식’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행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오프라인 소비가 급격히 준 지역 특산물의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지난 15일부터 네이버 쇼핑에서 진행 중이며, 지역별 인기 특산물 454개 품목이 판매 대상

이다. 완도 전복은 전남도 주력 상품으로 참여했다. 이번 기획전에는 비대면 소비 환경에 최적화된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톨’이 도입됐다.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들이 실시간으로 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와 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코로나19로 식품은 간편식·가정식으로 바뀌고 있고 소비 추세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획전을 통해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알리고 완도 수산물 판로 촉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네이버 등과 ‘랜선타고 팔도미식’ 기획전 업무협약을 맺어 완도 전복을 할인 판매한다. (완도군 제공)

광양시, 신중년일자리센터 개소 직무분석 통한 창업·일자리 연결

광양시가 40세부터 65세까지 신중년의 일자리 마련을 위한 센터를 열고 본격적인 일자리 연결에 나선다. 광양시는 중동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물 1층에 378㎡ 규모의 ‘광양시 신중년 일자리센터’를 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광양만권 일자리사업단과 컨소시엄으로 행정안전부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 구축 공모로 확보한 사업비 2억원이 투입됐다. 신중년 일자리 지원센터는 ▲재무·법률 등 사회 공헌형 공간 ▲예비 창업가를 위한 사무·소통 등 창업지원 공간 ▲상담·취업 등 경력형 일자리 공간 ▲스마트팜·실습시설 등 농업연계형 공간으로 구성돼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됐다. 센터는 올해 경력형 일자리(기업경영컨설팅, 경제경영전문상담, 마을환경기술지원 등) 20명, 사회공헌 활동 지원(인성교육, 봉사활동 등) 80명, 이·전직 교육 훈련 및 신중년 경력분석 잡(job)매칭 200명 등 총 3개 사업에 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MERITZ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Heungkuk Fire & Marine Insurance,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동부화재, KOREAN, SGI서울보증, AXA, AIG, TheK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